

주님의 사랑을 알자, 주님을 사랑하자

-복음으로 여는 아가서-

아가3:6-11, 요한복음3:16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만 예배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을 받았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를 듣고 집중하여 강단메시지를 성취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탐으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 대까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간의 사랑을 마치 뮤지컬이나 오페라 형식으로 기록한 시적인 가사이다. 아가서는 다른 성경들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정확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시들의 모음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글성경 관점에서 어려운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솔로몬인지, 술람미 여인인지, 합창하는 남녀인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표현되어 있다. 아가서는 깊은 목상이 필요한 성경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별 문제없이 이 아가서를 성경에 편입시킨 이유는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에는 이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간의 사랑의 관계로 보고 있다. 아가서는 이렇게 해석할 때 보다 더 정확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아가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결말이 열려있다. 이것은 사랑의 특징이 그 결말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랑의 특징처럼 아가서의 결말도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가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가장 복음적인 성경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사랑이다. 사랑 하면 용서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복음의 뿌리와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보았을 때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신앙지침서가 될 것이다.

1. 첫 번째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1) 그리스도는 검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아가서 1 장 5 절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라고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고백을 상징하고 있다.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의미한다. 검은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죄 많고 부족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 많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이다.

(2) 그리스도는 영육 간에 더럽고, 게달의 장막같이 거친 피부를 가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신랑이다. 아가서 1 장 5 절이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아가서 1 장 5 절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내가 검은 천막처럼 그을렸어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여기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이란 검은 그을린 천막을 의미한다. 게달은 광야에 거하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었다. 게달의 장막은 그 게달 민족이 썼던 장막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처럼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3)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용당한 여인을 사랑해 주었다. 1 장 6 절이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위 내용을 공동번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가뭇하다고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내 포도원은 버려 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햇볕에 그을은 탓이란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여인은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한 복음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4) 솔로몬 왕은 왕의 가마와 금관을 쓰고 목동이었던 천한 신분의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려 왔다. 아가서 3 장 6 절에서 11 절의 말씀을 보겠다. ‘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광야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불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천군천사를 상징한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이는 사탄과의 영적전쟁을 의미한다. 9 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마지막 때에 신랑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기를 바란다. 그 때와 시간은 언제 일지 모른다.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 성공하면 된다.

2. 두 번째로는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고백과 행동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입맞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더 사모하고 달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성간의 사랑의 표현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가 1 장 2 절을 보겠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말씀은 원어성경을 보면 신랑이 한 말이 아니라 신부가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어에는 남성, 여성 명사와 대명사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답을 아셔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축원드린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란다.

(2)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잡자리를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더 큰 희락과 행복을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도제자들의 절대목표이다. 아가서 7 장 10 절에서 11 절을 보겠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씀은 신부의 고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최고로 소망해야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와 관계되는 복음요절이 요한복음 3 장 16 절과 요한계시록 3 장 20 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연약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당하신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뺨 맞아도 침 뱀음을 당해도 채찍에 맞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완전복음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고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이 완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치유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3) 우리들이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고 찾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멀리하는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 아가서 5 장 6 절에서 16 절은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6 절에서 9 절 내용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을 수 있다. 이는 신앙적인 갈등을 상징한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걸음을 벗겨 가졌도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합창단) 여자들이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가서 5 장 10 절에서 16 절은 완

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지혜와 왕권, 최고의 지혜를 의미한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발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이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원드린다. 5 장 10 절에서 16 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면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 신부이기 때문이다.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결론으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흠 없는 여인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237 나라와 모든 족속, 상치입은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4 시간동안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24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집중해보기를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런 한 주간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해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써보고 수시로 사랑을 고백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7 가지 언약적인 흐름 속에서 RUTC 와 237 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 지 고민하는 언약적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후대들이 이러한 복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고, 모든 분야에서 탐이 되고 서밋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